

[정규과정]

인디게임, 결과물로 이어지는 게임 제작

프로토타입 툴 소개

빠른 기획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
프로토타입 툴의 개념을 알수 있습니다.

튜터 이주영

1. 개요

게임 개발을 하면서 많은 기획자들이 화면 UI를 설계할 때 대부분 파워포인트를 사용한다.

하지만 파워포인트는 제한된 공간에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,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획자의 의도를 문서만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.

그런 파워포인트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툴을 정리해서 소개해볼까 한다.

2. 프로토타입 툴 정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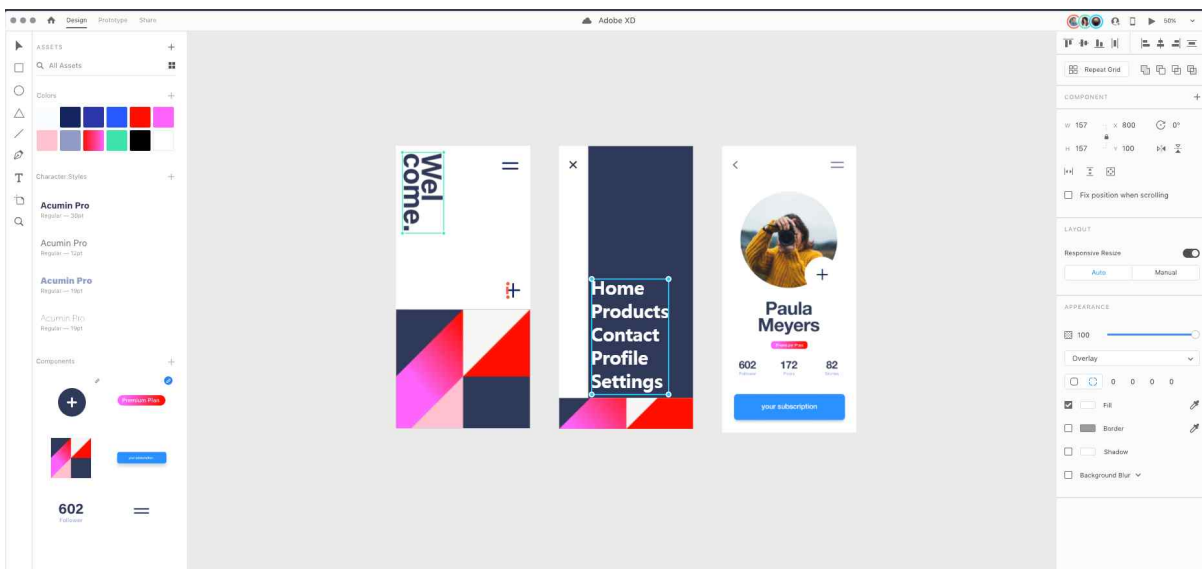
가. 어도비 XD (Adobe XD)

어도비에서 출시한 UI디자인 & 프로토타이핑 툴이다. UI디자인에 최적화된 툴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장점이다. 또한 프로토타입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작업 후 결과물을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다.

어도비 제품이라서 포토샵, 일러스트 등 다른 어도비 제품들과의 연동을 완벽하게 지원한다.

레퍼런스 및 플러그인이 적은 편이라서 확장성이 조금 떨어진다.

- 공식 사이트: [AdobeXD](https://www.adobe.com/ko/experience-design/xd.html) | 빠르고 강력한 UI/UX 디자인 및 협업 툴



- 이미지 출처: 공식 사이트

나. 파워mock업 (Power Mocku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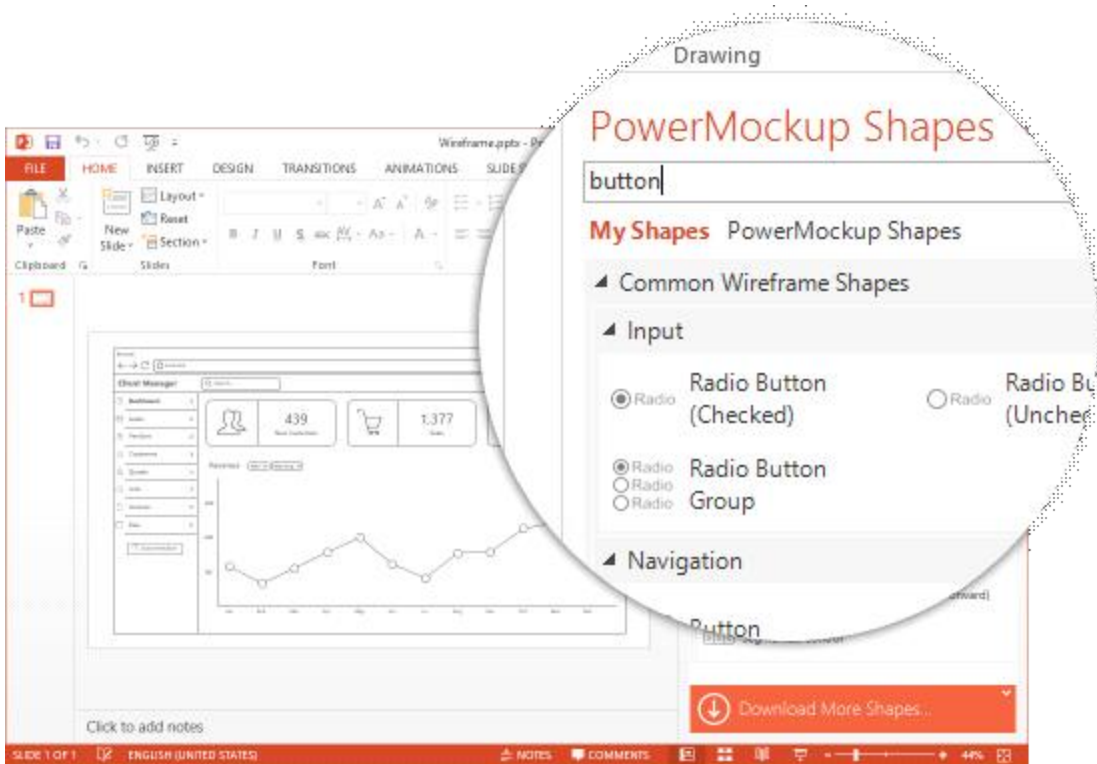
파워 mock업은 파워포인트에 추가 메뉴(add-on)을 설치해 mock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이다.

파워 mock업을 설치하면 파워포인트 상단에 PowerMockup 메뉴가 추가되고, 미리 제작해 놓은 레이아웃, 컴포넌트,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mock업을 드래그해서 사용할 수 있다.

파워포인트 내에서 작동하는 툴이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훨씬 빠르고 쉽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.

파워포인트 화면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.

- 공식 사이트: <https://powermockup.com>



- 이미지 출처: 공식 사이트

다. 발사믹목업 (Balsamiq Mockups)

스케치한 느낌으로 빠르고 심플하게 서비스 컨셉을 전달할 수 있는 목업 툴이다. 디테일한 화면 구성은 어렵지만 간단히 스케치할 때는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.

한글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쉽다.

아이디어를 단시간에 빠르게 스케치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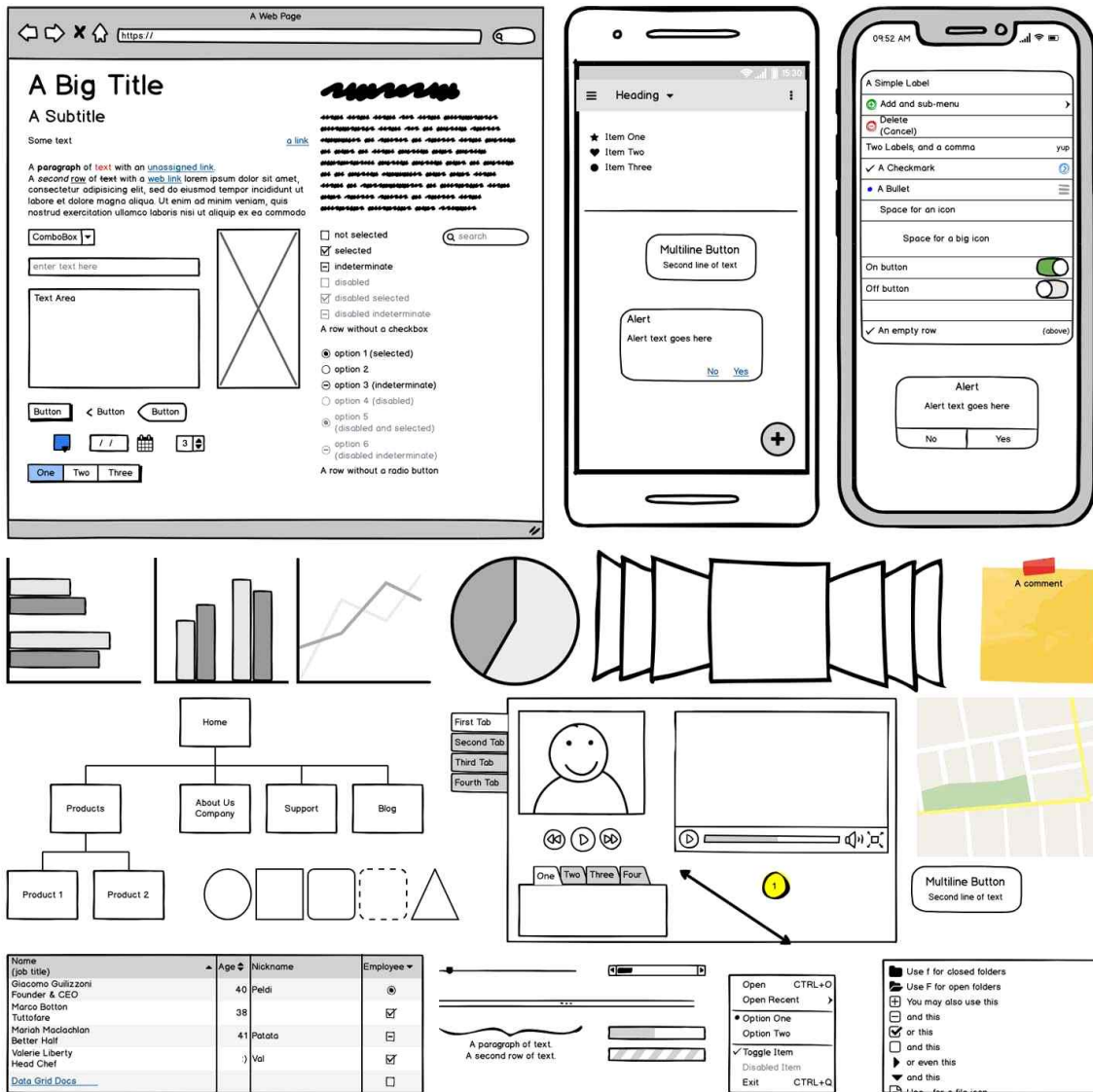
- 공식 사이트: <https://balsamiq.com>

- 이미지 출처: 공식 사이트

라. 카카오오븐 (Oven)

카카오에서 제작한 프로토타이핑 툴이다.

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장점으로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손쉽게 화면을 그릴 수 있고, 온라인으로 제작한 화면을 QR코드 및 단축 URL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.



발사믹 목업과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설계보다는 서비스 컨셉을 간단히 공유하기에 적합하다. 디자인 시안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모바일 등의 디바이스에서 테스트해 볼 수도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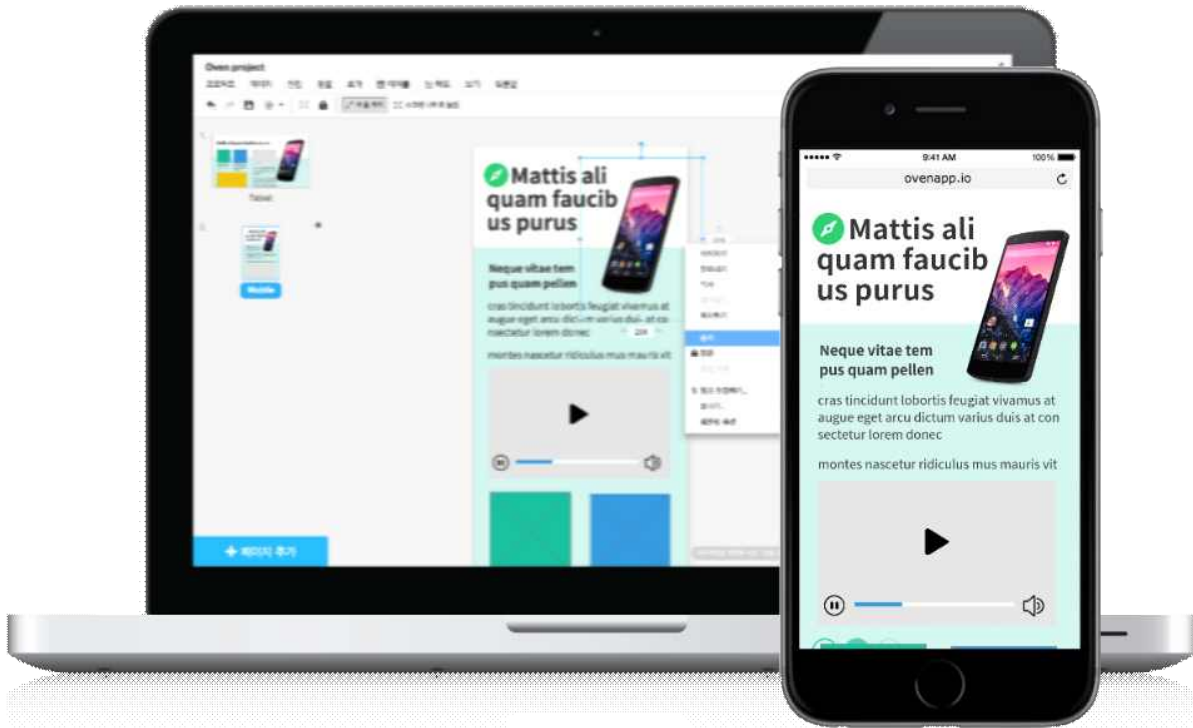
아이디어를 단시간에 빠르게 스케치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하다.

- 공식 사이트: <https://ovenapp.io>
- 이미지 출처: 공식 사이트

마. 액슈어 (AXUR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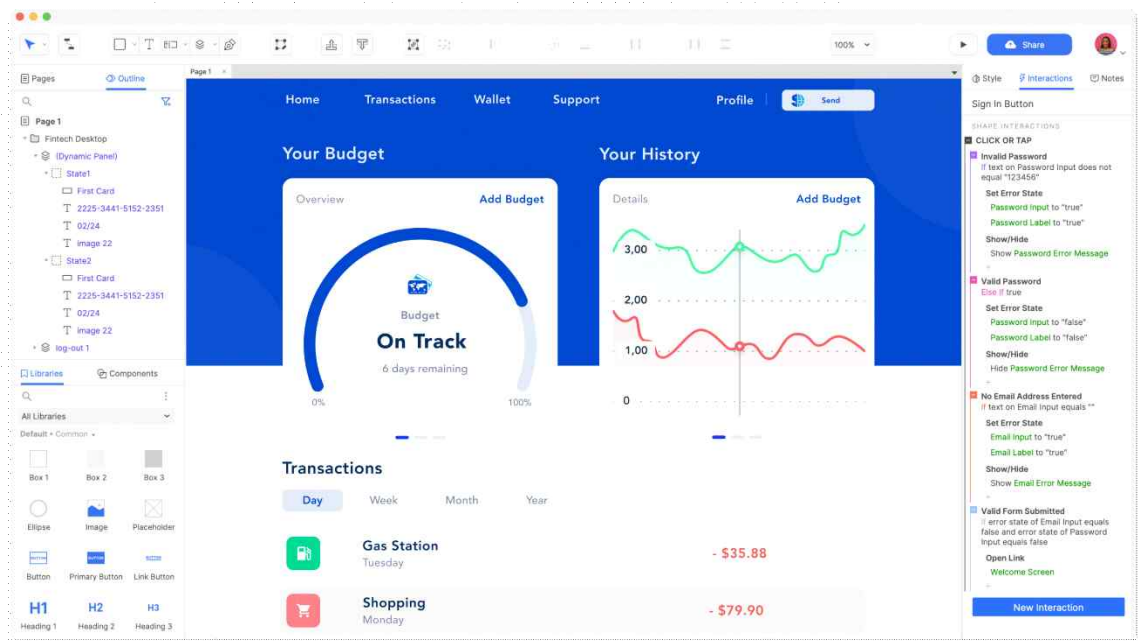
액슈어는 스토리보드에 포함되는 정책, 플로우 차트, 디스크립션까지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이다. 팀 프로젝트로 협업도 가능하기에 국내 환경에 잘 맞는 툴이기도 하다.

출력물의 경우 옵션을 조금만 설정하면 파워포인트만큼은 아니지만 보기 좋게 구성할 수 있다. 단점은 다른 툴들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.



와이어프레임부터 프로토타입까지 한 번에 제작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하다.

- 공식 사이트: <https://www.axure.com>



- 이미지 출처: 공식 사이트